무명을 깨는 길, 불교생태철학의 길

- 김종욱의 『불교생태철학』이 지니는 의미-

최종석 (금강대)

前동국대학교 홍기삼 총장은 2003년 10월에 열린 "제2회 불교생태학 세미나"에서,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학제적 연구의 창조적 극대화와 이 시대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가로지르기적 복합성을 불교생태학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생태계 위기의 문제를 불교사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불교생태학의 철학적 그리고 실천적 심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그와 함께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화를 위해서라도 불교생태학의 학문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말에서 홍기삼 총장은 불교가 21세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불교다운 불교의 모습과 역할을 지적

불교학리뷰(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2권 (2007) 125p~136p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 불교정신으로 설립된 동국대학교를 불교생태학 연구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만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불교를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응용하여 불교를 사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이다.

아직 그 생각들이 서론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불교생태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 성과들이 묶여서 시리즈로 발간되었다. 그것이 불교생태학총서이다. 지금까지 모두 5권이 나왔다. 앞으로 4권이 더 나올 예정으로 되어있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생태학의 이론적 정립과 병행해서 현대한국사회의 생태적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모임인 에코포럼이 2004년 10월에 결성되었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 동국대학교 안에 에코포럼을 주관하는 생태환경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에코포럼에서는 학자들과 현장의 전문적인 실무진들이 만나서 불교생태학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고받고 한 것을 3권의 책자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생태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교적 시각으로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다시 그 해법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한 흔적을 살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발간 중인 불교생태학총서의 1권은 김종욱의 『불교생태철학』이다. 김종욱은 불교학을 서양철학과 접목시켜 불교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있는 소장학자이다. 그는 꾸준히 불교생태학에 관심을 갖고 일련의 글을 발표해 왔다. 그 노력의 결실이 『불교생태철학』이다. 이 책에서 그는 체계적으로 불교생태학의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총서의 2권은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불교와 생태학』의 번역본이다.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종교와

생태학"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세계종교와 생태학총서"시리즈로 묶어 모두 10권으로 발간하였다. 이 중에서 불교와 생태학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묶은 것이 『불교와 생태학』이다. 그 다음으로 총서의 3권에서 5권까지는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단이 해외 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된 것들이다. 3권인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는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단이 2004년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과의 공동연구 성과물이다. 4권인 『현대사회비판과 불교생태학』은 영국 런던대학과의 공동 연구성과이며 5권인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은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와 공동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이루어졌다. 양적으로 볼 때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단 시일 내에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총서에서 계속 출간될 예정인 제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재영의『선의 생태철학』, 데이비드 킨슬리(원병관 역)의 『생태학과 종교』, P. James(김종욱 역) 『불교환경윤리와 덕윤리』, 페터 게리츠(최종석 역)의『세계종교 속의 인간과 자연』이다. 이 정도면 불교생태학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교생태학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은 생태현실의 진단과 처방일진대, 실제적 진단과 실제적인 처방을 위한 일련의 성과물이 있다. 바로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에코포럼에서 17차에 걸친 세미나를 통하여 이룬 학제적 연구결과로 나온 생태학 총서 3권이다. 첫 번째 책은 환경평가제도의 문제와 환경운동 그리고 구체적 실례인 천성산 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그 책의 제목은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이어서 『생태적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욕망』그리고 중간 결론에 해당하는『지속가능발전-이해와 실천적 전략』이다.

오늘날의 생태학(ecology)은 근대화의 반성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의 · 식 · 주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가치관이나 규범 등 인간관계 구조 및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가져오게 자극한 것은 과학문명의 발전이 가져다 준 신속함과 편리함은 결국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대가를 치루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생태계의 재앙은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생태학' 이란 말이 거의 하나의 문화적 경향을 표현하는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물학의 한 분과인 생태학에 '불교' 를 앞에 혹은 뒤에 붙여서 불교생태학(Buddhist Ecology) 또는 생태불교학(Eco-Buddhism)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교 신학에 '환경신학' 이나 '생태신학' 이란 말이 없었다. 결국 현대사회의 생태현실이 만들어낸 인문학의 응용분야이다. 그러나 응용불교학의 중요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불교생태학' 이란 명칭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너나 할 것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생태학이라고 불리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 왜냐하면 불교생태학은 불교학의 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기체의 상호작용과 유기체들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는 생물학의 하부 분과인 생태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생태학이라 부르면 불교학이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사상이자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는 원래의 의도가 불교교리의 발생학 내지는 불교 종교 행위의 생리학을 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즉 불교가 원용하려 것은 생태학적 시각과 방법론이지 생태학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학적 불교(Ecological Buddhism) 또는 생태불교

학(Ecobuddhism)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생태학'보다는 '생태불교학'이라고 부르면 이런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의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학문영역으로 보다 적확하게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명칭의 문제와는 별개로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 환경 파괴를 고려하면 생태학적 사유에 기초한 불교학 연구는 다양한 응용불교의 분과들 중에서 아주 유력한 분야가 되었다. 생태계의 파괴나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불교학계가 다급해졌는지, 아니면 불교는 우리의 것인데 서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생태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불교적 시각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것을 빼앗기기나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바심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교생태학'이냐 아니면 '생태불교학'이냐 하는 용어선정에 대한 논의는 열어보기도 전에 '불교생태학'이란 말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누가 처음에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책자로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김종욱의 『불교생태철학』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실로 크다. 그 뒤로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불교와 생태학관련 세미나에서는 한결같이 '불교생태학'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왕에 굳어진(?) 용어이니까 혼동을 막기 위해서 '불교생태학'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불교생태학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인 박경준이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좁은 의미로 보면 환경·생태의 문제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응용불교학의 한 분과학문이라고 본다. 이때의 '불교생태학'은 '불교생태사상'(The Buddhist Thought of Ecology) 또는 '불교생태론'(The Buddhist Theory of Ecology)으로서 '생태불교학'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Eco-Buddho-logy', 'Buddhist Ecology', 혹은 'The Buddhist Studies of Ecology' 표현한다.

다음으로 넓게 바라보는 불교생태학이다. '불교와 생태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학문'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불교생태학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학문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에 참여 가능한 학문분야로서는 불교학과 생태학을 중심으로 생물학, 환경공학, 건축 · 토목공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을 들고 있다. 이 경우 '불교생태학' 은 영어로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Buddhism and Ecology' 라고 표현한다.[1]

백도수는 불교생태학을 시대구분에 따라 초기불교생태학, 부파불교생태학, 대승불교생태학, 밀교생태학, 선불교생태학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았고, 다시 나라별로 인도불교생태학, 중국불교생태학, 한국불교생태학 등 지역불교생태학으로 나누어 보고, 불교생태학분야와 연관학문분야를 고려하여 불교정치생태학, 불교사회생태학, 불교경제생태학, 불교문화생태학, 불교생태윤리학, 불교여성생태주의, 불교환경생태학 등으로 구분했다.[2] 이처럼 불교생태학은 그 연구를 넓게 하던 혹은 좁게 하던 간에 실로 다양한 연구방향을 가지고 있다.

김종욱은 『불교생태철학』을 통해 좁게 또는 넓게 불교와 생태학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미 『불교평론』에 생태문제와 불교에 대한 글을 연재했고 그 성과를 『불교에서 보는 철학, 철학에서 보는 불교』로 상재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불교생태철학』은 그의 일련의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묶여져 나온 것이다. 김종욱은 불교생태학의 필요성을 앞세워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제적 연구를 통한 창발성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한 생태계 위기문제를 철학적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그리고 생태계의 조화와 생명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

1) 박경준,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의 발전적 추진방향」, 『불교생태학 그 오늘과 내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3, 74-75쪽.
2) 백도수 『불교와 생태』, 해조음, 2004,15쪽.

천방안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불교생태학이다" 또는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이라는 연생(緣生)과 상생(相生)의 불교정신에 입각해 제반 학문들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생명해방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불교생태학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전 동국대 홍기삼 총장이 표명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불교생태학의 전개방향을 '학문 내적 통합으로서의 생태학연구'와 '학문간 교류로서의 생태학 연구'로 나누어 보았다. '학문 내적 통합으로서의 생태학 연구'를 통해 개별 학문들 내부의 다양한 주제들을 생태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여 각 학문 속에서 생태학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시 모여서 불교생태학의 취지에 맞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생태철학 아래에 분류되는 것은 불교환경윤리학, 생태종교학, 비교생태철학이고, 불교생태인문학 아래에는 생태문학, 생태역사학, 생태미학이 통합되여 불교생태사회과학에서는 생태법학, 생태정치학, 생태사회학, 생태교육학이 만나고, 불교생태경제학 아래는 환경경제학, 생태경영학, 생태행정학이, 그리고 불교경관생태학은 생태자연과학, 생태자원학, 생태건축학이 함께 한다고 분류하였다. 왜 이렇게 전개해야 하면 "생태계의 위기의 궁극적 원인인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불교적 통찰에 의해 깊이 반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학문들 간의 통합적인 학제연구를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과학문들은 창발적으로 조화시켜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절실"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거대한 불교생태학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불교생태학 연구의 진행방향이 한 마당 학술향연으로 실현되었다. 그것이 2006년 5월에 열린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이다. 이 대회에서의 대주제는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였다. 이 대주제는 '지식기반 사회와 환경문제', '불교생태학과 서양사상',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

교생태학'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21개의 소주제로 다루어졌다. 이 학술잔치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불교생태학 연구의 국제적 메카로 동국대학교가 자리매김하는 것 같았다. 이 대회에서 다룬 주제들이 김종욱이 제시한 연구방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분류한 학문분야가 골고루 불교생태학과 만나고 있었다.

이처럼 불교생태학은 생태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과 관련을 맺으면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500여년을 걸쳐 형성되어 온 불교가 역사, 문화,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거의 모든 학문적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불교가 보여주는 사상적 특징은 일방적인 지배의 논리나 일시적인 생태학적 환경보호 차원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위기 문제를 불교철학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반성을 요청하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욱은 붓다가 현실을 바라보고 제시한 틀을 그대로 불교생태학에 대입시킨다. 그는 그것을 '생태학적 사성제'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사성제를 각각 생태학적 고집멸도 사성제로 풀어낸다. 이런 틀이 나중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원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멸성제가 목표이고 도성제가 처방이면 도성제에서 이야기를 다 끝내야 하는데 다시 생태지혜를 따로 떼어내어 설명한 것은 사족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혹시 병이 재발하지나 않을까 하고 다시 한 번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단도리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의 반야 지혜와 서양의 소피아 지혜를 비교설명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불교생태철학에서는 서양의 소피아나 사피엔티아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반야의 무분별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은연이 암시하고 있다. 불교의 지혜인 반야까지 이르는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반야는 결국 세상이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세상이치는 바로 법

(dharma)이요 법의 내용은 연기이다. 세상은 연기의 이치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고 이 이치를 따라 통찰하면 '현상과 본체가 차별되지 않고 주체와 객체가 분열되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이 대립되지 않아' 그래서 '연기적 총체성의 터전에서만 지혜는 치유이자 구원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생태계의 고통이 해소된 생태학적 평화 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 고 결론을 내린다. 마치 지혜의 교상판석을 하고 있는 생태지혜적 포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김종욱이 그리는 불교생태철학의 본격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 사성제' 의 틀을 서구철학과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김종욱이 시도하는 '생태학적 사성제' 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성제적 생태불교학' 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종욱의 불교생태철학의 전개는 먼저 생명의 문제로 시작된다. 생명관의 역사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적 생명관' 에서 '산업적 생명관' 그리고 '불교생태학적 생명관' 전개시키고 있다. 60만년전 혹은 100만년전의 채집경제에서 '농경을 시작하던 인류가 문명을 이루면서 얻게 되는 '농업적 생명관' 과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욕망의 극대화과정에서 얻어지는 '산업적 생명관' 그리고 생명의 위기의 대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교생태학적 생명관' 을 말한다. 이런 전개의 틀은 얼핏 보면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문명의 전환기를 구분하여 농경문화를 제1의 물결이라 하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을 이룬 이래 이루진 산업화를 말한다. 결국 인류의 문화적 전개는 제2의 물결에서 정보화의 제3의 물결로 나아갈 것인데 이 시대는 탈산업화의 시대라고 하였다. 이 시대의 지식과 정보는 엘빈 토플러가 지적한대로 어느 시대에서도 갖지 못했던 혁명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생명관은, 김종욱이 교판한대로(?) 생명관이 진화한다면 '불교생태학적 생명관' 이 제3의 생명관이 될 것이다. 이 생명관은 바로 '연기의 법칙' 에서 나온다. 현대생태학으로 생명의 본질을 풀어보면 '상호의존성' 을 대표로 '순환성' 과

'항상성' 이라는 것이다.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태학에서 법칙을 올바로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관의 진화의 귀결점은 '불교생태학적 생명관' 일 수밖에 없겠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실천적인 생태학적 수행일 것이다. 생태학적 수행은 바로 일체 중생에 대한 상호존중의 실천으로서, 일체 중생에 대한 비폭력(不殺生)과 생명해방(放生)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 책에서 다시 윤리의 진화 확산 과정을 담고 있다.

사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 자연환경이 훼손된 것은 인간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적인 존재라는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대상화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파괴시킨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3] 이러한 인간 중심적 윤리(ethics of anthropocentrism)는 인간만이 절대적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그 밖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적, 수단적, 다시 말해서 외재적 가치만을 지닌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자연환경의 파괴가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다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된다. 그것이 생태계에 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는 관점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물이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

3) 장회익, 『삶과 온생명』, 솔, 1998, 270-271쪽.

연물이 자연 그자체로서 최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에 본연의 생명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명 중심주의로 발전된다.[4]

따라서 윤리공동체를 인간사회에서 동물사회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고통을 알고 감정을 가진 동물도 윤리적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입장이다. 이를 동물중심적 윤리(ethics of animocentrism)라고 한다. 윤리학의 범위가 더 확산되면서 동물중심적 윤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은 물론 식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생물중심적 윤리학(ethics of biocentrism)으로서 윤리공동체의 범위를 모든 생물에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간 중심적이나 동물중심적 윤리관에서는 존재양식 사이에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 단절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각 존재들 사이의 관계성이 무시된 것이다. 그러나 생물중심적 윤리관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 사이에 절대적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이 생태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생물중심 윤리관에서도 생물계와 무생물계간의 불연속과 절대적 단절성이 그대로 전제되고 있다.[5] 생명과 무생명은 서로 건널 수 없는 절대적 심연의 양쪽에 대치된 단절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존재양식 사이의 단절성과 비연속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 사이를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별해 보는 것은 서양의 세계관에 기인한다. 서양의 윤리관이 아직 생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덜 진화(?)되어 그 범위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서양윤리는 과정적 진리로서 언젠가는 불교적 생태윤리로 귀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

4) 장회익, 위의 책, 272-273쪽.

5) 박이문, 『자비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4, 209-211쪽.

김종욱은 그러나 윤리적으로 남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상호의존하여 일어난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익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 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호의존하는 것들은 서로 존중하라고 '선언하는' 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의 귀결은 결국 인간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욕망이 문제이다.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저지른 것은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 사고뭉치 덩어리인 인간에 대한 동서양의 인간관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관의 변천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서구사회의 근대성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결국 합리주의에 기초한 근대성의 피폐를 극복하려는 포스트모더니티는 불교생태철학과 만나야 한다고 이끌고 있다 이 만남은 김종욱 불교생태철학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티와 불교생태철학이 만나는 클라이맥스를 경험한 그는 인간은 무명을 극복해야 할 존재이고 무명에 의해 망각되고 있는 다르마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교생태철학이 가는 길은 역시 무명을 타파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 뿐이다.